



화성도시개발청
우리동네 그린맵

Be the Partner
푸른강기리 실천협의회

화성의리 2-1 화성시



화성시 그린맵

성 이야기
시호호



www.00000000000.or.kr

시화호섬 이야기

1994년 시화호 방조제가 완공되기 전까지 바닷물이 유입되었던 시화호 내 (화성) 섬에는 우음도, 형도, 어도 3개의 유인도와 농섬, 개미섬, 한염 등 크고 작은 무인도가 있습니다.

자금은 이름만 섬일 뿐 차를 타거나 걸어 갈 수 있는 육지가 되었습니다. 물막이 공사 이후 바닷일을 하던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고 바닷물이 오가지 못하는 시화호는 죽음의 호수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부터 시화호에 바닷물이 다시 유동되자 썩어있던 갯벌이 살아나고 물고기와 철새도 다시 고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진행형인 지역개발로 인해 시화호 섬들은 예전의 모습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는 시화호의 섬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합니다.



1. 공룡알화석지 2. 우음도 3. 형도 4. 어도 5. 농섬, 수섬, 목섬, 각시당

공룡알 화석지

공룡알 화석지는 1994년 시화방조제 완공이후 1999년 발견되어 이듬해인 2000년 3월 천연기념물 41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약 1억년 전인 중생대 백악기 공룡들의 마을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12개 지점 약 30개 동지에서 200여개의 알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1. 닭섬, 개미섬 2. 한염 3. 상한염, 중한염, 하한염



1억년전 공룡의 땅 공룡알화석지

태고적 자연의 모습을 간직한 이곳은, 금방이라도 공룡이 뛰어 나올 듯한 광활한 초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1억년 전 초식공룡들이 강의 상류였던 이곳에 주기적으로 찾아와 알을 낳던 평화로운 놀이터이자 생명의 땅이었습니다.

현재 육지가 된 이곳은 물막이 공사가 진행되기 전엔 갯벌이었으며, 그 이전에는 바다였던 곳입니다.

다양한 갯벌식물과 육상식물이 공존하고 고라니, 너구리, 멧토끼 등 야생동물 서식지가 되었으며 이 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훌륭한 생태학습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룡알 화석지 내에는 개미섬, 닭섬, 한염, 상한염, 중한염, 하한염 등과 무명섬이 존재합니다.

1. 닭섬과 개미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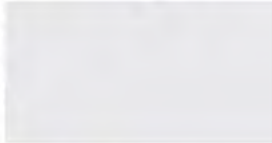
닭섬과 개미섬은 한염의 북쪽에 있는 섬으로 한염에서 바라보았을 때 마치 닭의 볏과 개미를 닮은 모양 때문에 닭섬과 개미섬으로 불립니다. 두 곳 모두 공통알화석이 발견되었으며 다양한 자생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닭섬 위도 37.269716 [37° 16' 10.98" N] 경도 126.761520 [126° 45' 41.47" E]
 개미섬 위도 37.266232 [37° 15' 58.44" N] 경도 126.767936 [126° 46' 4.57" E]

2. 한염

한염은 공통알화석지 내에서 가장 큰 무인도입니다. 한염에서도 공통알 화석이 발견되었고 특히, 해안사구가 발달하여 예쁜 해당화와 사초 군락지가 있습니다.



한염 위도 37.260460 [37° 15' 37.66" N] 경도 126.764674 [126° 45' 52.83" E]

3. 상한염, 중한염, 하한염



한염의 남서쪽에 위치한 섬으로 공통알 화석이 다수 발견된 곳입니다. 섬 이름에 염(鹽)자가 붙으면 물이 없어 농사를 짓거나 먹고 살수 없는 척박한 땅을 말합니다. 이 섬들은 공통알화석지 방문객들에게 공개 되어 생태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한염 위도 37.259913 [37° 15' 35.69" N] 경도 126.758484 [126° 45' 30.54" E]
 중한염 위도 37.258240 [37° 15' 29.66" N] 경도 126.757829 [126° 45' 28.18" E]
 하한염 위도 37.257967 [37° 15' 28.68" N] 경도 126.756252 [126° 45' 22.51" E]



2012년 00월 00일

시화초 환경탐사 중 정남초 학생들의
공통알화석지 생태그린맵

우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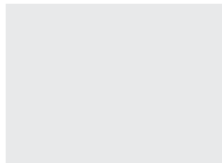
우음도라는 어원은 섬의 생김새가 소와 닮아서
혹은 육지에서 소 울음 소리가 들린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1. 분교 2. 지층 3. 나홀로나무 4. 당제(본당)



○ 바람도 쉬어가는 곳 우음도

1. 지질명소



우음도의 서쪽에 위치한 암석은 선캄브리아 시대(약 18억년 전)의 변성암과 이를 관입한 중생대 화강암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단층과 습곡 등 다양한 지질구조를 볼 수 있어 자연지질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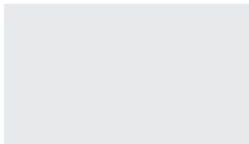


지질명소

담섬 위도 37.269716 (37° 16' 10.98" N) 경도 126.761520 (126° 45' 41.47" E)

2. 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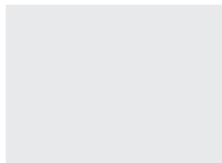
우음도의 중턱에 위치한 고정초등학교 우음 분교는 1949년 4월 25일 개교하여 1997년 9월 1일 폐교되었으며 11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우음도 서쪽바다를 전망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학교

담섬 위도 37.269716 (37° 16' 10.98" N) 경도 126.761520 (126° 45' 41.47" E)

3. 나홀로나무



섬 주변의 광활한 초원에는 버드나무가 종종 홀로 서 있어 사진가들 사이에 왕따 나무라 불립니다. 계절과 시간에 따라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촬영 명소입니다. (사진제공 한국사진작가협회 화성지부 이병미)



산림자연지역

담섬 위도 37.269716 (37° 16' 10.98" N) 경도 126.761520 (126° 45' 41.47" E)

우음도 당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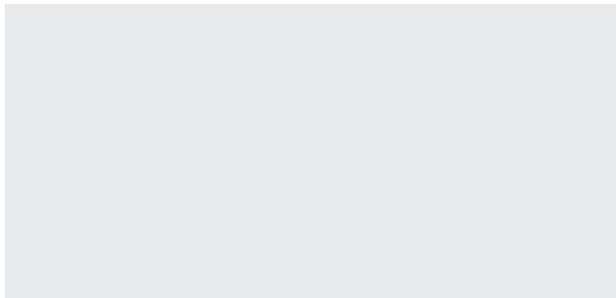
당제란?

해안도시지역 마을제로 어촌지역은 풍어의 기원, 해상재해 방지 등의 어업생활의 기원을 목적으로 하며 마을사람들이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에게 마을사람들의 무병과 안녕, 나아가 풍요를 기원하는 공동제사

제당

우음도의 제당은 크게 본당, 군웅당, 각시당(나락부리당), 왜갈당, 안산당으로 나누어 지는데 이 중에서 현재 그 모습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본당이다. 본당에서 소원지를 태워 소당굿을 하고 군웅당에 모여 뒫뒫 형태의 축제로 마무리한다.

현재 '생명 희망 당제'라는 이름으로 '우음도 생태보존회' 주최로 옛날 공동체적인 마을의 분위기를 다시 회복하고자 격년으로 열리거나 상황에 따라 매해 열리기도 한다. 사라져간 마을의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고 주민들의 안녕과 시화호의 미래를 축원하는 행사로 이어가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형도

형도(衡島)는 저울이섬이라고 불립니다. 인근의 어부들이 형도가 바닷물에 드러난 정도를 보고서 물때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섬이었습니다.

1. 철새도래지 2. 분교 3. 전망대



○ 실항민을 닮은 섬 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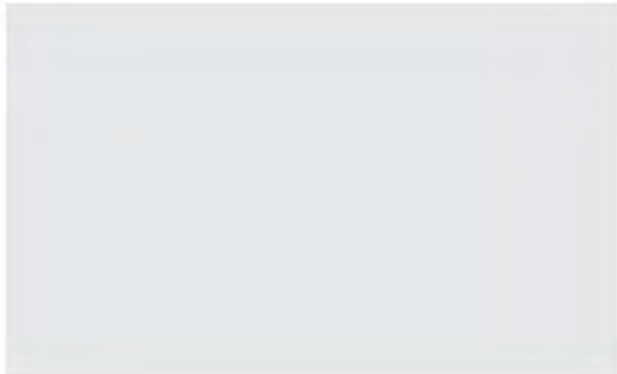
송산면 독지리에서 목섬을 거쳐 1km가량을 더 가면 형도가 나옵니다.

그 옛날 형도는 봉수대가 있는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형도는 암석으로 이루어진 돌섬으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한 것은 6.25전쟁 이후 실항민들이 정착하면서입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였고 주요 어획물로는 농어, 꽃게, 새우, 송어 등이 있으며 굴과 조개 양식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형도 중앙의 돌산은 채석작업으로 두 동강이 났으며 섬 전체가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제2의 고향을 꿈꾸던 섬 주민들은 또다시 고향을 떠나야 할 처지입니다.



1. 철새(형도습지) 도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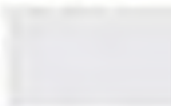
형도의 북서쪽에 위치한 철새 도래지는 천연기념물 206호 노랑부리 저어새와 201호인 큰고니 등 다양한 철새들이 찾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향후 골프장이 들어설 계획이어서 철새들의 보금자리가 위태롭기만 합니다.



남섬 위도 37.269716 (37° 16' 10.98" N) 경도 126.761520 (126° 45' 41.47"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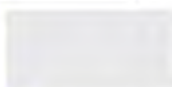
2. 분교

마산초등학교 분교로 1999년 학생수가 9명으로 줄면서 그 해 9월 폐교되었습니다. 형도의 전경을 바라보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남섬 위도 37.269716 (37° 16' 10.98" N) 경도 126.761520 (126° 45' 41.47" E)

3. 전망대



섬을 따라 우측으로 돌면 선착장을 지나 산 중턱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탁 트인 시화호 내해를 바라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남섬 위도 37.269716 (37° 16' 10.98" N) 경도 126.761520 (126° 45' 41.47" E)

4. 봉수대 (위치불명)

형도 정상부에 5m X 5m 크기의 봉수대가 있었으나 80년대 채석장이 들어서며 훼손되어 소실 되었습니다. 동북쪽으로 안산시 정왕산의 봉수대가 보이며, 남쪽으로는 해운산 봉수대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남섬 위도 37.269716 (37° 16' 10.98" N) 경도 126.761520 (126° 45' 41.47" E)

마고 할미 전설

옛날 마고 할아버지와 마고 할미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서로 내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마고 할아버지는 대부도 황금산에 산을 쌓고 마고 할미는 형도에 돌탑을 쌓기로 한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한참을 정신 없이 산을 쌓다가 문득 형도를 바라보니 마고 할미가 쌓은 탑이 아름답기 그지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마고 할아버지의 산은 마고 할미의 탑을 따라갈 수가 없었기에 그만 심술이 난 마고 할아버지는 발로 형도에 있는 돌탑을 차버렸습니다. 그러자 탑의 한 쪽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얼마 전까지 형도에 있던 탑의 한쪽이 부서져 있었는데(봉수대) 이것은 바로 마고 할아버지가 발로 찼기 때문이라고 전해 내려옵니다.



어도

어도(漁島)는 어섬이라고 불리며 예로부터
고기가 많이 잡혀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1. 개미다리 2. 진거바위 3. 마산수로



주요지형지물

숲새
도래지역

습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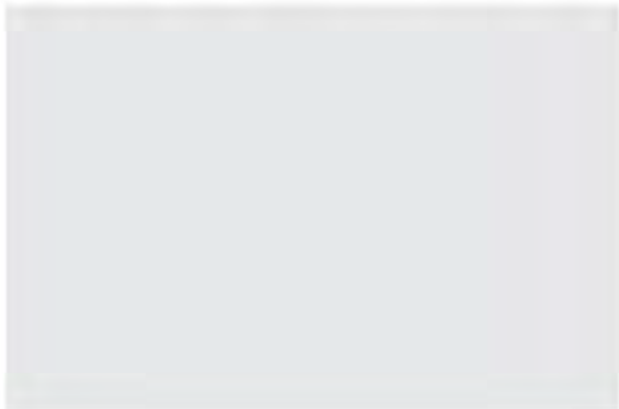
자연림/
자생식물

○ 개미다리 만들어 육지화된 섬 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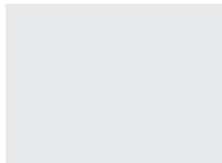
어도는 작은 섬 마을이지만 청동기 시대 조개무덤이 발견되었고, 본격적으로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는 조선시대(약300년 전) 이씨들이 정착하면서
부터 입니다.

방조제가 생기기 전에는 마산포와 더불어 대규모 양식어장이 있던 곳으로
주민들은 대부분 굴과 바지락 양식을 하였으며 꽃게, 낙지, 소라 등 사시사
철 수산물에 넘쳐나는 풍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물막이 공사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많은 섬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고 지금
은 몇몇 주민만이 섬을 지키고 있으며 자전거와 경비행기를 즐기는 동호인
들이 섬을 찾고 있습니다.



1. 개미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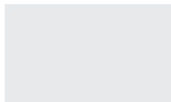
마산포에서 어도를 잇는 700m의 길로서 마을사람들이 3년에 걸쳐 지게와 등짐으로 개미처럼 돌을 저 날라 만들어진 개미다리는 1973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다리를 통해 육지와 섬을 오가며 굴과 바자락 등 어패류를 운반하였다고 합니다.



추진지역

담섬 위도 37.269716 (37° 16' 10.98" N) 경도 126.761520 (126° 45' 41.47"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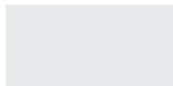
2. 진거바위



추진지역

담섬 위도 37.269716 (37° 16' 10.98" N) 경도 126.761520 (126° 45' 41.47" E)

3. 마산수로



담섬 위도



경도



담섬 위도

37.269716 (37° 16' 10.98" N) 126.761520 (126° 45' 41.47" E)

어도 이야기 발굴

발굴 필요 작성

농성, 수성 목성, 각시당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우음도를 가리전
공룡알화석지 원편 2.5km 안쪽에 있는 각시당
은 밀물에 물이 잠기고 썰물에 보이는 작은 바
위섬에 시화호 간척사업으로 육지가 되어있는
곳입니다.

1970년 간척선 출몰 이후 1980년대 폐쇄된 군초
소가 존재 하고 있으며 각시당 이름과 관련한
이 바위섬에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1. 농성 2. 수성 3. 목성 4. 각시당

여신의 전설이 있는 곳 각시당

아주 오랜 옛날, 바닷가에 금슬 좋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바다에 나간 남편
이 돌아올 시간이 되면 각시는 갯바위로 마중을 나가곤 했습니다.
모진풍랑이 있던 어느 날, 남편은 우여곡절 끝에 이웃의 배를 타고 간신히
돌아왔으나 갯바위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각시는 결국 풍랑 속으로 사라졌
다고 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그 후로 각시의 슬픈 넋을 기리기 위해 이곳을
각시당이라고 부르고 각시의 억울한 넋을 달래기 위해 당을 지었습니다.



1. 농섬



시화호 무인도의 하나로 수섬과 농섬의 거리는 3km, 시화호 입구에서 2.5km의 비교적 가까운 섬으로 섬의 정상에는 80년 대까지 군 초소가 있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으며 주변의 띠 벌판과 함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농섬 위도 37.257796 (37° 15' 28.07" N) 경도 126.724763 (126° 43' 29.15" E)

3. 목섬



독지리(문지) 마을회관에서 형도 방향으로 약 1km의 거리에 있습니다. 형도를 건너가기 위해 배를 기다리거나, 걸어 들어가기 위해 바닷물이 빠지기를 기다린 대기장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농섬 위도

2. 수섬

수섬은 농섬과 형도 사이에 위치한 무인도로서 암석 위에 소나무와 해당화 등의 기타 나무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섬 한바퀴를 돌면서 각양 각색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수섬 위도 37.264576 (37° 15' 52.47" N) 경도 126.705301 (126° 42' 19.08" E)

4. 각시당

각시당은 밑물에 물이 잠기고 썰물에 보이는 작은 바위섬에 시화호 간척사업으로 육지가 되어있는 곳입니다.

1970년 간척선 출몰 이후 1980년대 폐쇄된 군 초소가 존재하고 있으며 각시당 이름과 관련된 이 바위섬에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1970년대에 이 곳에 간척선이 종종 출몰하면서 1978년에 인근 군부대에서 군초소를 지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두 명의 군인이 죽게되자 1980년대 중반 초소가 폐쇄되었습니다.



각시당 위도 37.268606 (37° 16' 6.98" N) 경도 126.731093 (126° 43' 51.93" E)





Think Global! Map Local!

우리가 그려가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그린맵(Greenmap)은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에 대한, 사소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우리동네의 정보”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린맵 아이콘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상에 쉽게 지도(Map)의 형태로
표현하여 알리는 전 세계적인 운동입니다.
그린맵 운동은 지속가능한 내 지역(커뮤니티)을 위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만들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입니다.

이제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가
우리 대한민국, 경기도, 내 지역, 우리동네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그린맵운동을 시작합니다.

www.greenmap.kr / hs.greenmap.kr

문의 :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21ggag@gmail.com)

화성의제21 실천협의회(www.fhs21.or.kr)



푸른경기21
우리동네 그린맵

Be the Partner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화성의제21

화성시

그린맵은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민관 협력기구인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제작 관리하고 있습니다.